

# 반종 감독 “랑종, 100% 태국어로 제작... 한국서 개봉 흥분”

“나홍진 감독 열렬한 팬...완벽함에 스트레스도”

“악·원죄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영화 ‘랑종’은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원안과 제작을 맡고, 태국 최고 흥행작을 만든 감독이 연출한 공포물이란 점에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더욱이나 감독이 ‘랑종’에 비하면 ‘곡성’은 가족 코미디 영화라고 평가해 기대를 높였다.

태국 사머니즘 호러 끝판왕이라는 평을 받는 ‘랑종’을 연출한 반종 피산다나온 감독을 화상으로 만났다.

영화는 태국 동북부 이산 지역의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신내림이 대물림되는 무당 가문의 이야기를 가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린다. ‘랑종’은 태국어를 무당을 뜻한다.

이산 지역은 숲, 산, 나무, 논밭, 집 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토속 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마을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가문의 대를 이어 조상신 ‘바안신’을 모시는 랑종이 있다.

나홍진 감독은 기획과 제작은 물론 시나리오 원안을 집필하며 ‘랑종’의 뼈대를 완성했다. 나 감독은 실제

의 날것과 같은 생생한 영화적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적임자를 고민한 끝에 태국을 대표하는 반종 피산다나온 감독과 손을 잡았다. ‘서티’로 태국 호러 영화의 새 지평을 열고 ‘피막’으로 태국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실력을 인정 받은 연출가다.

반종 감독은 나 감독과의 협업에 대해 묻자 “그의 열렬한 팬이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티’와 ‘삼’ 이후 오랜만에 호러 영화로 돌아온 그는 “‘삼’ 이후 호러 영화에 지루함을 느낀 와중에 ‘곡성’을 보게 됐다. ‘곡성’은 귀신이 아닌 분위기에 중점을 뒀던 공포심을 자아낸다”며 “이번 작품도 그동안 호러 영화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공포 영화물이라 느꼈다. 평소 존경하던 감독이어서 협업을 제안했을 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감독은 “원안을 받았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 여성의 드라마틱 한 인생과 일생이었다. 이상 증상이 나타

나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며 “무당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여자의 불안함과 인생을 리얼하게 묘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나홍진 감독과의 합작품으로 부담도 컸다고 그는 “랑종’을 작업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천재 감독인 나홍진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압박감과 중압감을 느꼈다. 제 작업을 보내고 의견을 받으니 완벽함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나홍진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태국 촬영 현장을 방문할 수 없었고, 이에 돌은 비대면 소통으로 작업을 함께해야 했다.

반종 감독은 “매일 촬영한 장면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눴다”며 “나홍진 감독은 내게 모든 결정 권한을 주면서, 영화의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제시해줬다”고 돌아봤다.

반종 감독은 영화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약 1년간 여러 지방, 특히 태국 이산 지역의 곳곳을 다니며 무당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30여명의 무당들을 만났다.

그는 “로케이션이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다. 하나의 캐릭터와 동급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산지역 전 지역을 운전해서 취재했다. 그렇기 때문

에 원하는 그림을 구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랑종’은 국내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다. 20대 여성 밈이 신내림을 거부하다 온갖 악귀에 빙의가 되면서 이야기는 극한으로 치닫는다. 오만 가지 욕구에 사로잡힌 밈은 마치 딴사람이 된 듯하고 급기야 인간성을 상실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저지른다. 반력견 및 유아 살해와 근친, 존속살해, 식인 등 잔인하고 자극적인 장면들이 몰아친다.

작품 수위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까. 지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나홍진 감독은 반종 감독을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반종 감독은 “나홍진 감독의 농담이 섞인 발언이었다. 각 장면의 수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며 “어떤 영화라도 청소년관람불가를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모두 필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넣게 됐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이 영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악과 원죄,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 등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의구심이 더 생기지만 인간의 악행은 또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것



같다. 밈의 행동은 인간의 ‘악’을 강조하고자 넣었다”고 덧붙였다. “100% 태국어로 제작된 태국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하니 흥분되네

요. 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개봉이 미정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는 14일 개봉한다.

## 몬스타엑스 서누, 22일부터 군복무



그들 ‘몬스타엑스’ 멤버 서누(29·손현우)가 군 복무한다.

서누는 10일 몬스타엑스 팬카페에 “오는 22일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잠시 공백기를 가지게 됐다. 데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는새 이렇게 군대에 가야 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팬분들에게 받은 응원,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너무나 큰 것들이었다”면서 “몬스타엑스 활동하며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맙고 항상 행복하시

### 몬스타엑스 멤버 중 처음

고 건강하세요. 사랑하고요. 금방 만나요”라고 덧붙였다.

서누는 망막박리(망막이 안저로부터 벗겨져서 떠올라와 있는 상태)로 인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다. 그는 지난해 7월 이와 관련 수술을 받았다.

서누는 몬스타엑스 멤버 중 처음 군복무를 감당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누의 훈련소 입소 장소 및 시간은 공개하지 않는다.

서누는 지난 2015년 ‘무단침입’(Trespass)으로 멤버들과 데뷔했다.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다.

몬스타엑스는 계단식 성상을 거듭했다. 지난해 초 발표한 미국 첫 정규 앨범 ‘올 어바웃 러브(ALL ABOUT LUV)’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 5위를 차지하면서 K팝 대표 그룹 중 한 팀이 됐다. 같은 해 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에서 펼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뉴시스



## 블랙위도우, 극장가 활력 100만 돌파

### 토요일만 43만명 관람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감독 케이트 쇼트랜드)가 코로나 확산에도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블랙 위도우’는 10일 43만 38명이 관람해 누적 관객수는 101만 5992명이다.

개봉 4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반면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어, 블랙

위도우의 흥행 질주가 이어질 수 있지 주목된다.

‘블랙 위도우’는 어벤져스 일원인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의 과거를 그린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로 보면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와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사이에 블랙 위도우에게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스칼릿 조핸슨, 플로렌스 퓨, 레이철 와이즈, 데이비드 허버 등이 출연했다.

조우진 주연의 ‘발신제한’은 2위로 현재 누적 관객수는 87만255명이다.

## 이브이알스튜디오, ‘기생충 VR’ 공개...“사업 다각화 성과”

###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서 ‘기생충 VR’ 공개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한국: 입체적 상상’ 전시에서 이브이알스튜디오의 ‘기생충 VR’을 체험하는 관람객들. (사진=이브이알스튜디오 제공)

“이브이알스튜디오는 작년 말부터 AAA급 콘솔 게임 개발 외에 XR, 디지털 휴먼, 메타버스 등으로 사업 다각

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VR’에 대한 많은 찬사들은 이런 노력의 첫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 ‘노는언니’ 측 “故 서보라미 촬영분, 유족과 상의 후 방송 여부 결정”

### 고인이 생전 애착 가지고 기다리던 방송

E채널 예능 ‘노는 언니’ 제작진이 한국 여자 장애인 노르딕스키의 간판인 고(故) 서보라미 선수 촬영분 방송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노는 언니’ 제작진은 10일 “유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충분히 상의 후 방송 여부를 결정하고자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인이 생전에 애착을 가지고 기다리던 방송인 만큼 신중하게 조정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제작진은 “지금은 유가족들과 선수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게 우선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여성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노는 언니’ 녹화를 얼마 전 마쳤다. 오는 13일 방송을 앞두

고 있다.

서보라미는 지난 9일 밤 갑작스럽게 3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장마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변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교 3학년이던 2004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서보라미는 국내 1호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다. 2008년 크로스컨트리 스키에 입문 이후 이 분야 한

영화에선 느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체험”이라고 평했다. 시나리오를 쓴 한진원 작가는 “2018년 봄과 여름에 열정을 불태웠던 그 장소를 다시 못 볼 거라 생각했는데 고개를 돌려 가면서 살살이 볼 수 있어서 무척 뜨거운 경험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브이알스튜디오는 ‘기생충VR’ 이후로도 다양한 XR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단, 날다팩토리와 함께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소재로 한 VR 영화 제작과 국내 기업들의 XR콘텐츠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휴먼 사업 분야에서도 지난 3월 디지털 휴먼 ‘SIRA’ 공개 이후, 인공지능(AI),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계 기업으로부터 협업 문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브이알스튜디오는 올해 새로운 디지털 휴먼을 개발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 간판으로 활약해왔다.

## 엔하이픈, 日 데뷔싱글로 오리콘 4일 연속 1위



### 총 18만2988장 판매량 기록

그들 ‘엔하이픈’이 일본에서 발표한 첫 데뷔 싱글로 4일 연속 오리콘 차트 정상을 지켰다. 9일 일본 오리콘 차트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난 6일 발매된 엔하이픈의 일본 첫 데뷔 싱글 ‘보더 : 허카나이(BORDER : ?)’는 5941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오리콘 일간 싱글 차트 1위 자리를 유지했다. 발매 첫날 15만254장의 판매

량으로 1위를 차지한 후 2일 차 1만 8631장, 3일 차 8162장에 나흘째 판매량까지 더해 총 18만2988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번 싱글에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발표한 데뷔 앨범 ‘보더 : 데이 원’ 타이틀곡 ‘기본-테이큰’과 수록곡 ‘렛 미 인’(20 CUBE)의 일본어 버전과 함께 ‘포갓 미 낫(Forget Me Not)’ 등 3곡이 수록됐다.

특히, 엔하이픈의 첫 일본 오리지널 곡인 ‘포갓 미 낫’은 일본 TV 애니메이션 ‘리-메인(RE-MAIN)’의 오프닝 곡으로 선정됐다.